

카드뉴스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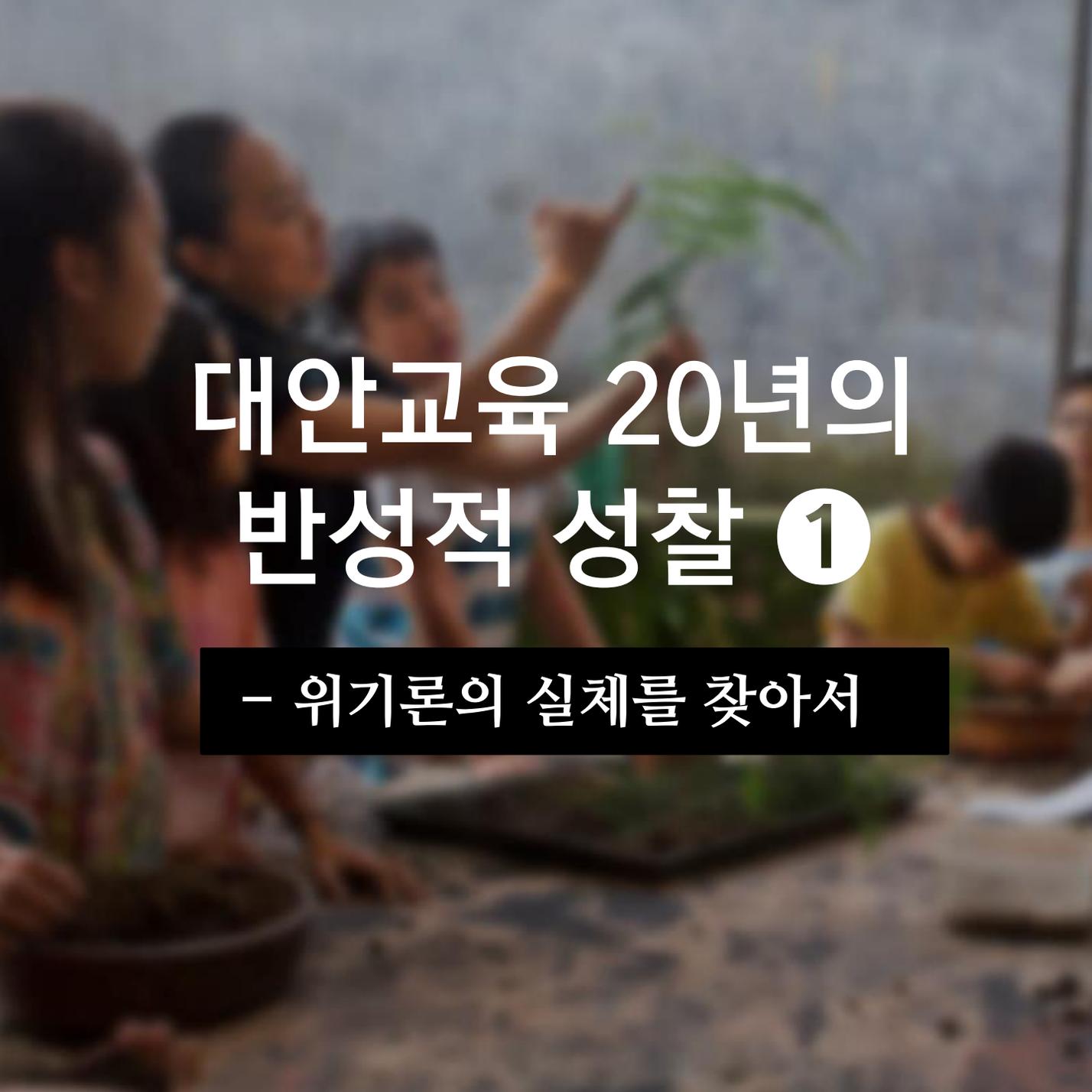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교육빅뱅 저자 - 이철국〉

목차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1. 위기론의 실체를 찾아서(1)
2. 위기론의 실체를 찾아서(2)
3. 대안교육은 우리 교육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 공(功)을 중심으로
4. 혁신하는 교사가 대안교육을 혁신한다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넘나들며 생각한다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①

- 위기론의 실체를 찾아서

이 시리즈는
대안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글이 아닙니다.
대안교육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전망을 고민해보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철국 (불이학교 교사)

대안교육은
과도한 경쟁교육 대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다.

대안학교는 ‘거대한 다양성의 호수’

화성에서 온 교사와 금성에서 온 부모와
명왕성에서 온 아이들이 뛰노는 호수.
그렇지만, 다양성에서 오는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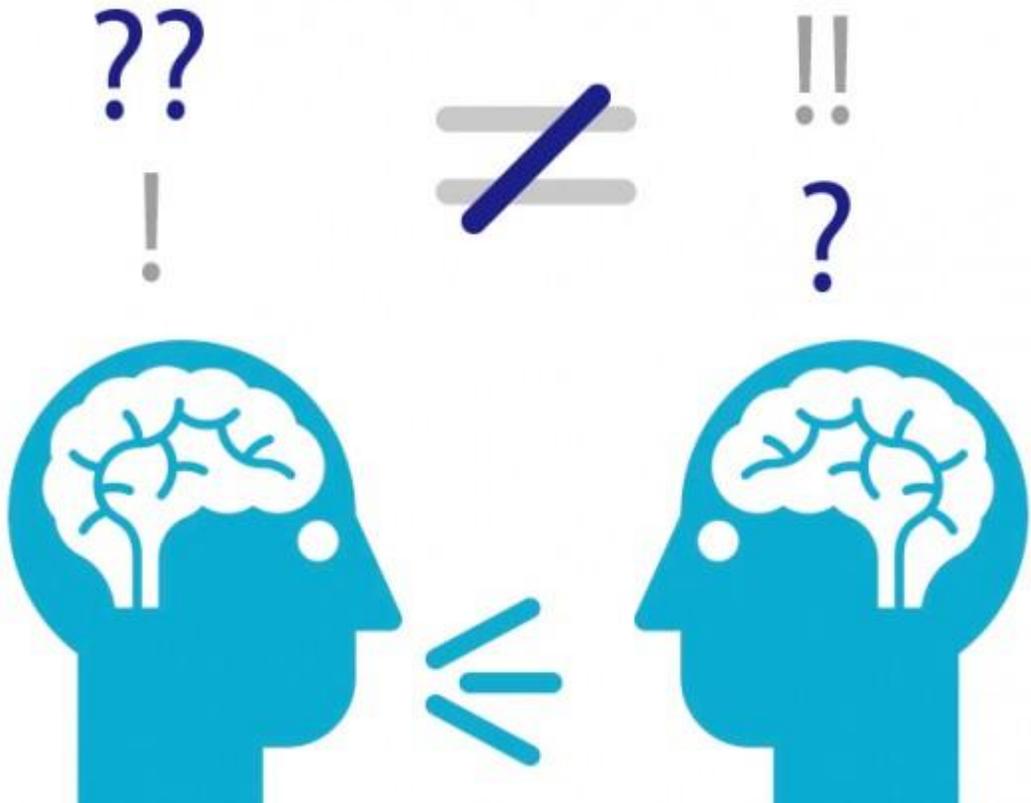
Differ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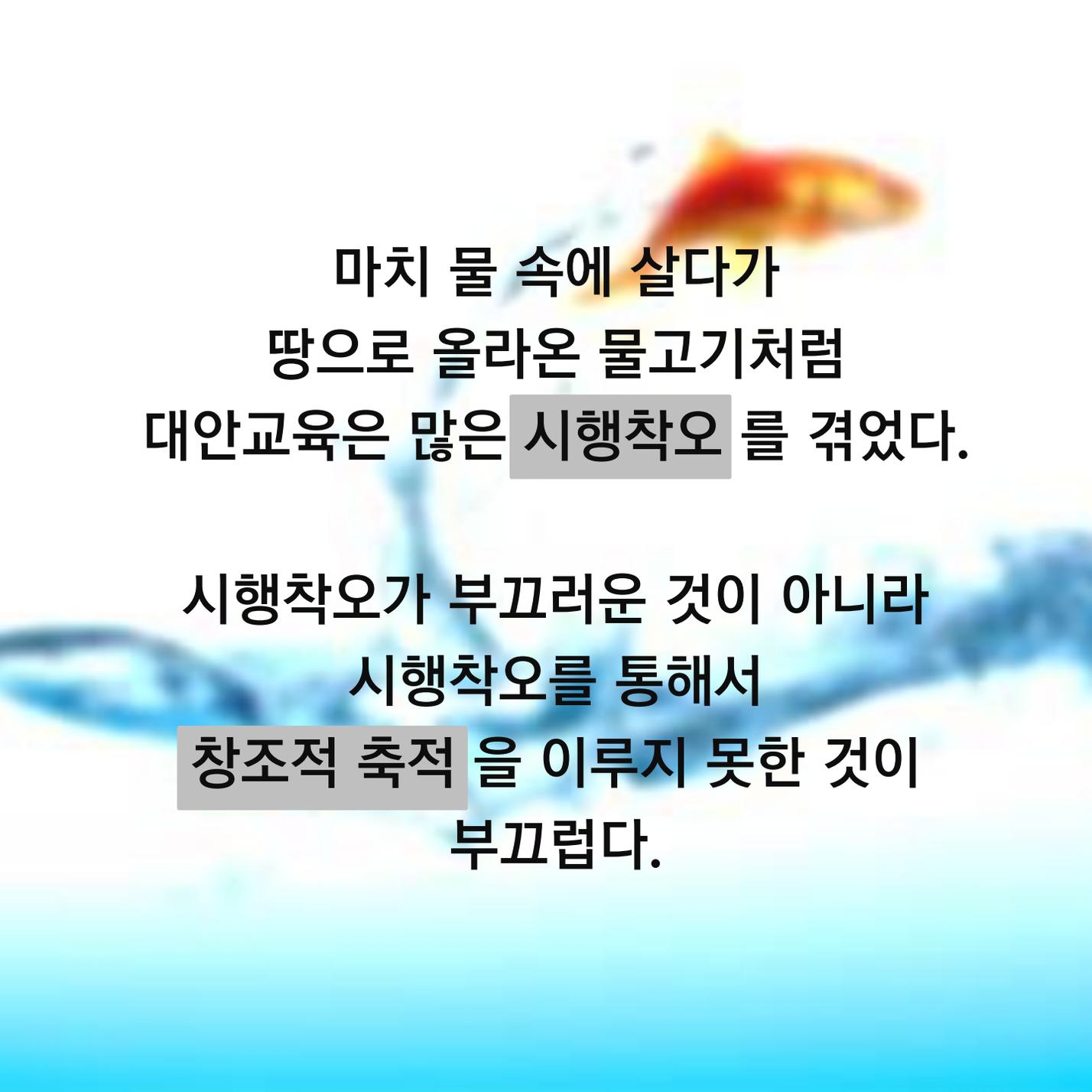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실행버튼을 눌렀다.

Different

학교는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충돌하는 소통의 장이다.





마치 물 속에 살다가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대안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시행착오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창조적 축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새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재와 씨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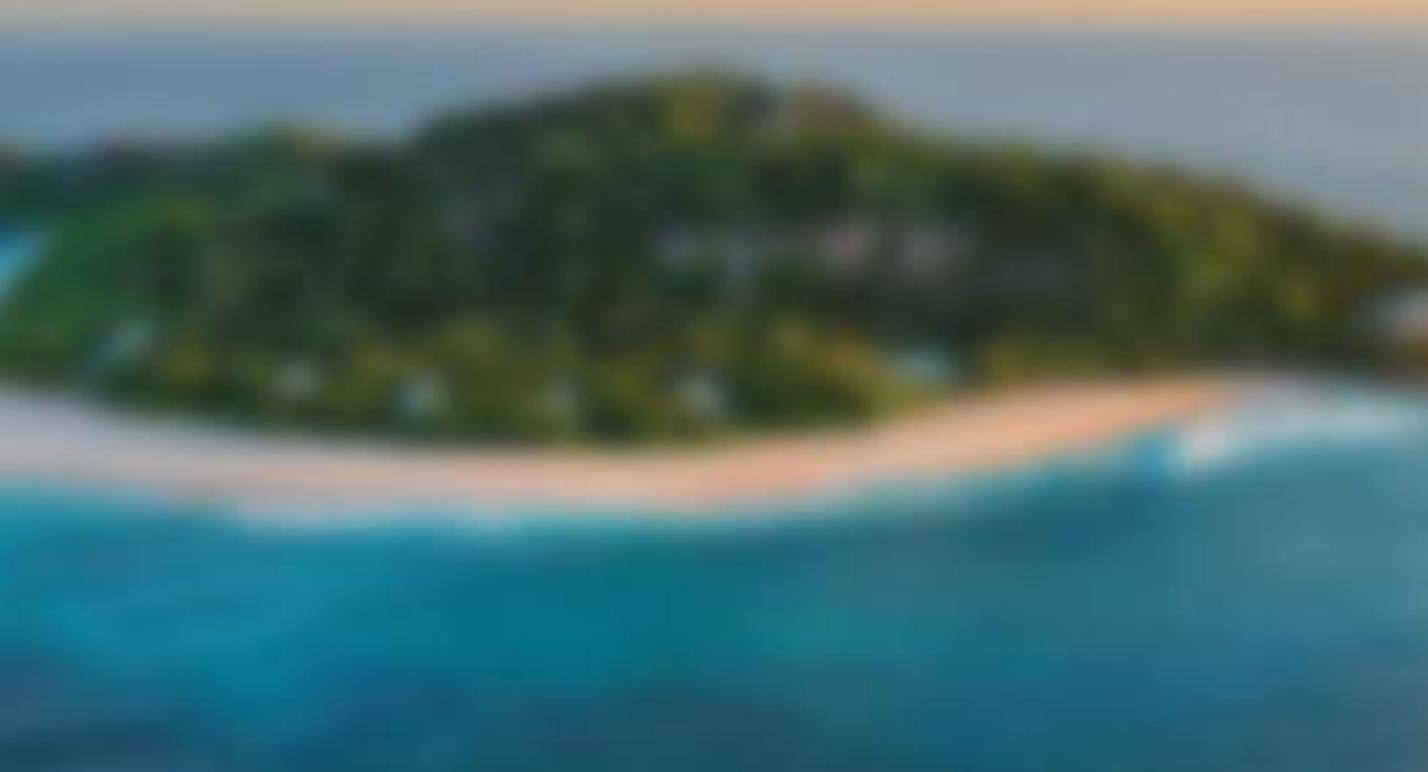


대안교육의 정신은
모범생/문제아 혹은
우등생/열등생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듯이,
교육과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정상-비정상, 장애-비장애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

대안학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완결적인 일종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특별한 섬 내지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계층적으로 갇히게 되었고,
이것이 대안교육에 대한
오해를 낳은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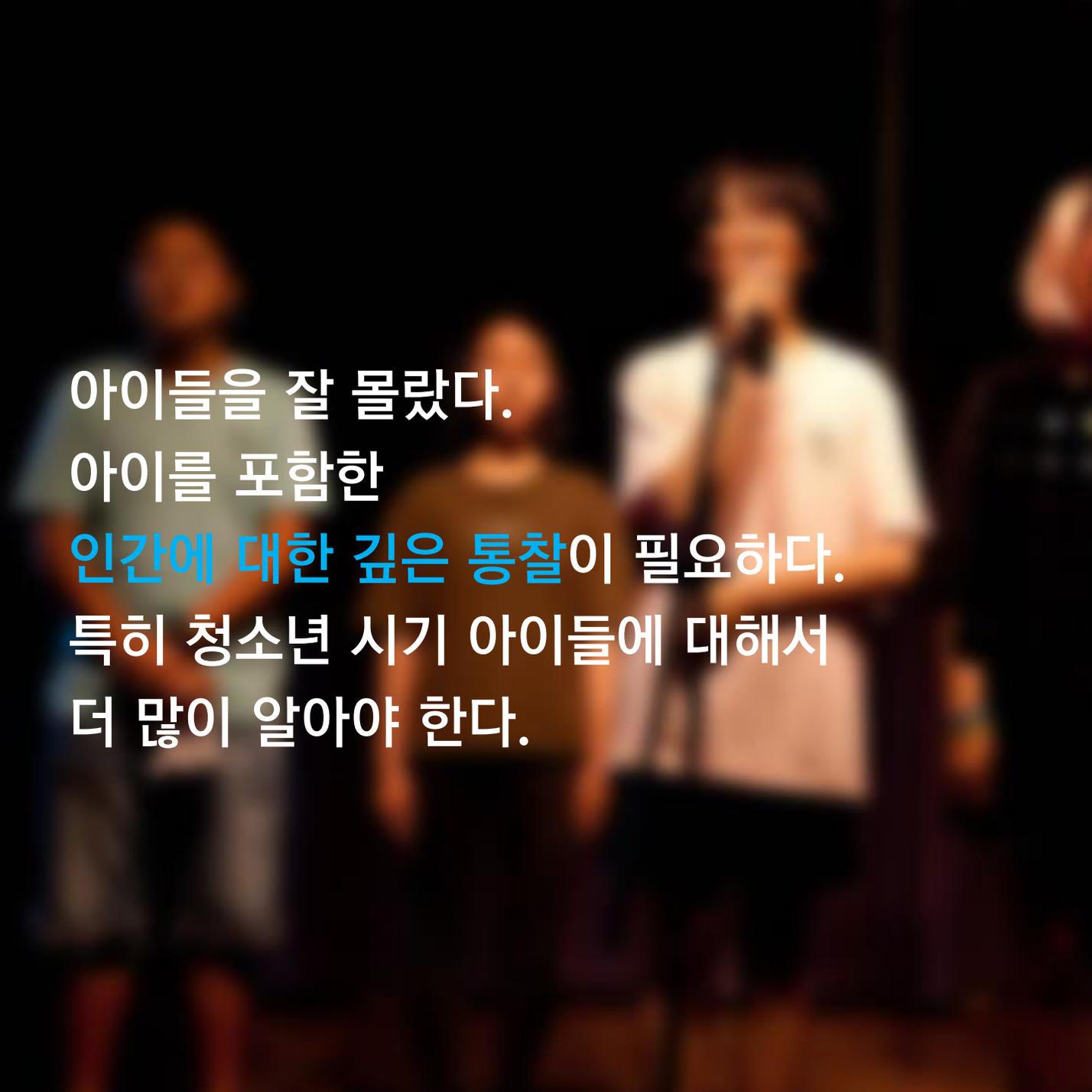


공짜 점심은 없다.
이웃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
가령 매월 1회 일제히 우리 동네
대안학교 개방의 날 같은 것.

학교마다 내세우는
철학과 실천(수업,교육과정 등)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가치를 교육과정에 녹여낼
능력과 준비가 부족했다.

중요한 건 멋있는 철학보다
올바른 실천이다.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검토하면서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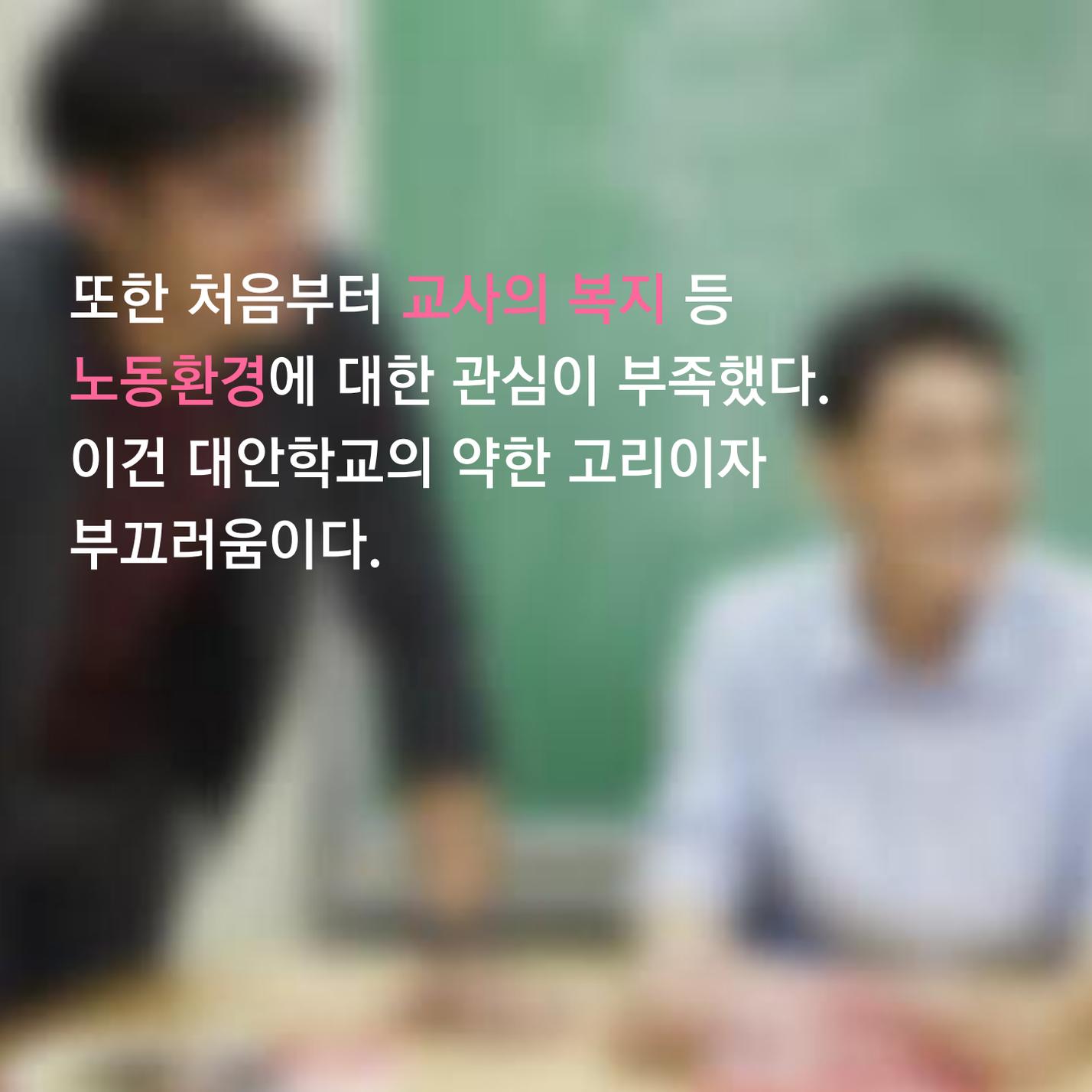


아이들을 잘 몰랐다.

아이를 포함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

A blurred background image of a classroom. A teacher is visible on the left, and several students are seated at desks on the right.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또한 처음부터 **교사의 복지** 등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건 대안학교의 약한 고리이자
부끄러움이다.

교사 복지와 대중성,
안타깝게도 이 관계가 모순적이다.

교육비를 올리면
교사 복지는 높아지지만 문턱이 높아지고,
문턱을 낮추면 대중성은 높아지지만
교사 복지가 희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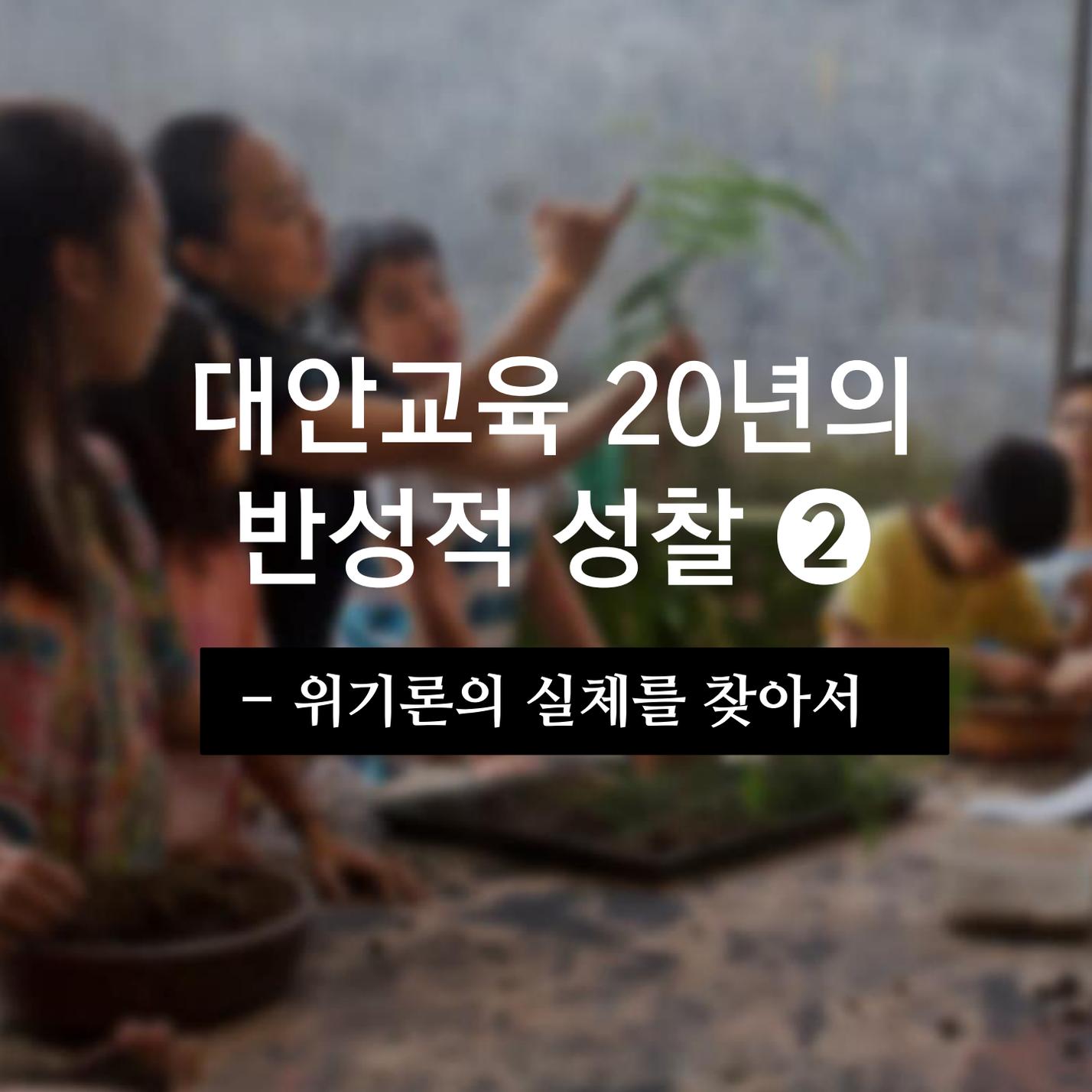
paradox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럴 때 교사는 대안교육에 대한
자극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2 | 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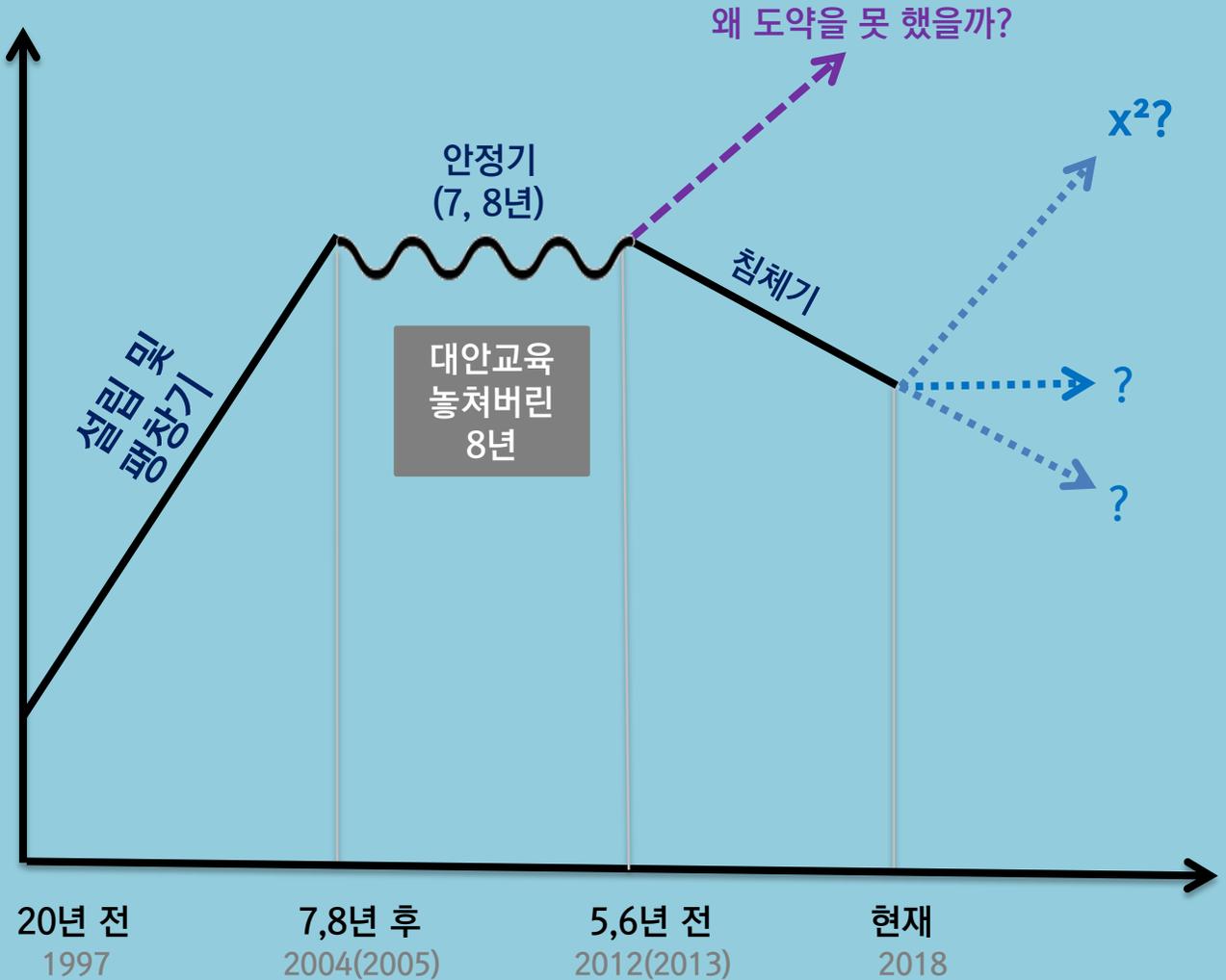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②

- 위기론의 실체를 찾아서

실천적 관점에서 본 대안교육 20년의 흐름



설립 및 팽창기

2001 ~ 2006년 동안
매년 11 ~ 14개 대안학교가 생겨났고,
대안교육에 관한 많은 담론들이
화려하게 피어났으며,
창조와 동시에 분열의 시기였다.

안정기

‘놓쳐버린 8년’ 왜 도약을 못했나?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법제화(제도화)로 혼란스러웠나?
기존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지 않았다.

침체기

‘잠재적 위기’

위기로 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활력을 잃었고,
우리 사회 교육의 큰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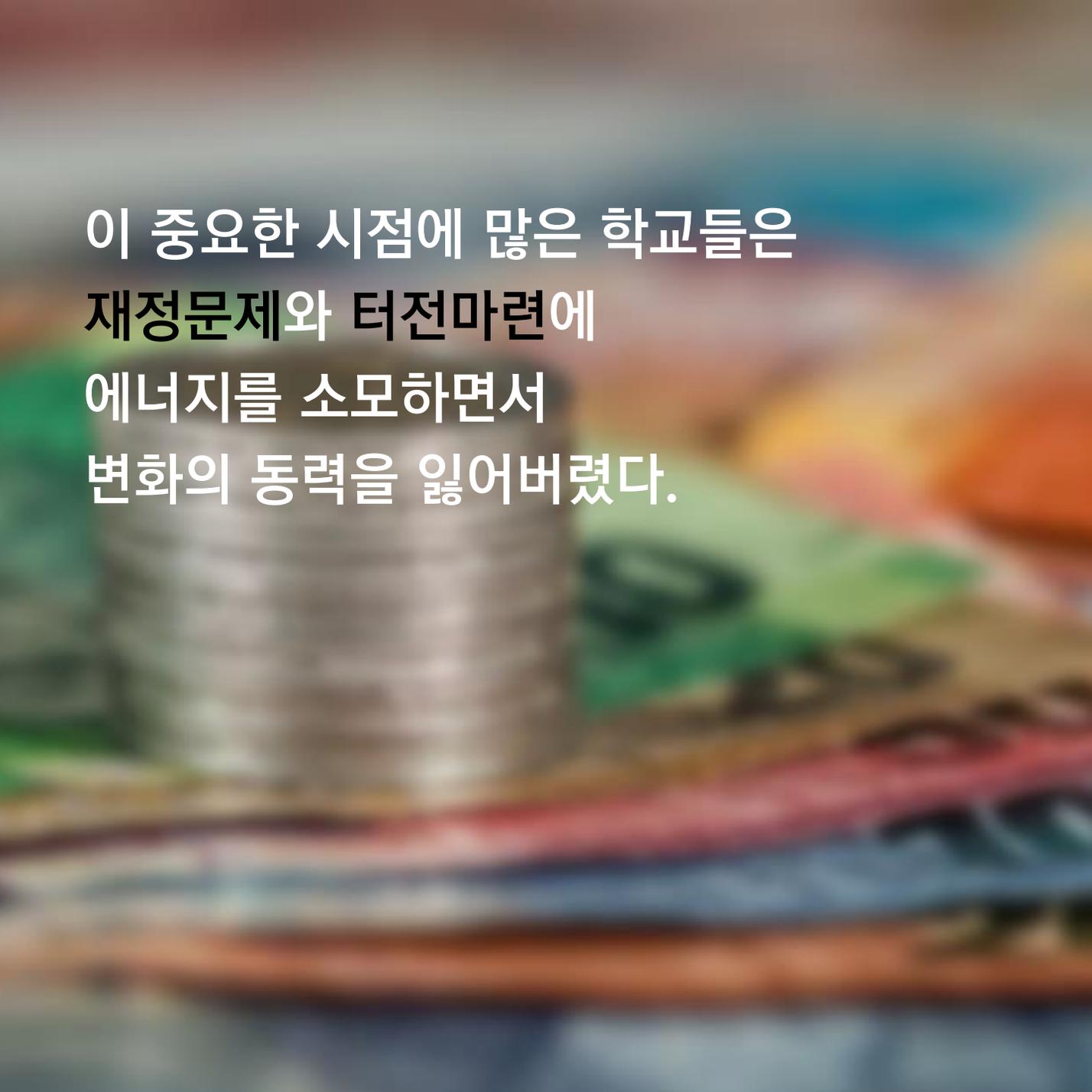


대안교육의 ‘놓쳐버린 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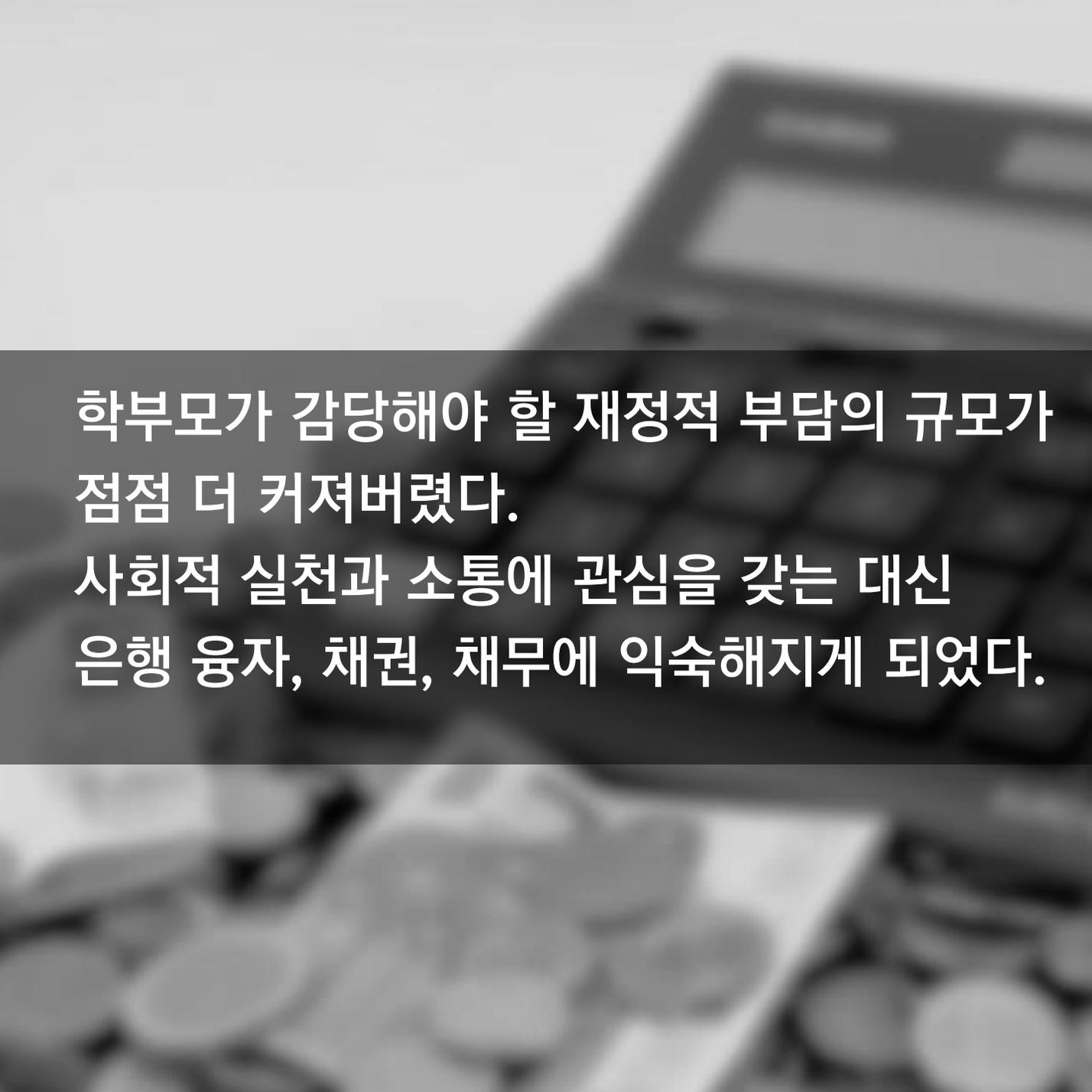
- 무엇을 했어야 했나?

철학을 재점검하고, 교육과정을 다듬고,
교사 처우개선에 힘쓰고,
2세대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서
사회적 실천과 소통에 나섰어야 했다.

대안교육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족했다.
유능한 중견 교사들이 떠났고,
새로운 교사를 양성하지 못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많은 학교들은
재정문제와 터전마련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변화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버렸다.

사회적 실천과 소통에 관심을 갖는 대신
은행 용자, 채권, 채무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대안학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386세대가 물러가면서
학부모가 바뀌었기 때문” 이
아니다.

“혁신학교에서
대안교육의 철학과 내용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지원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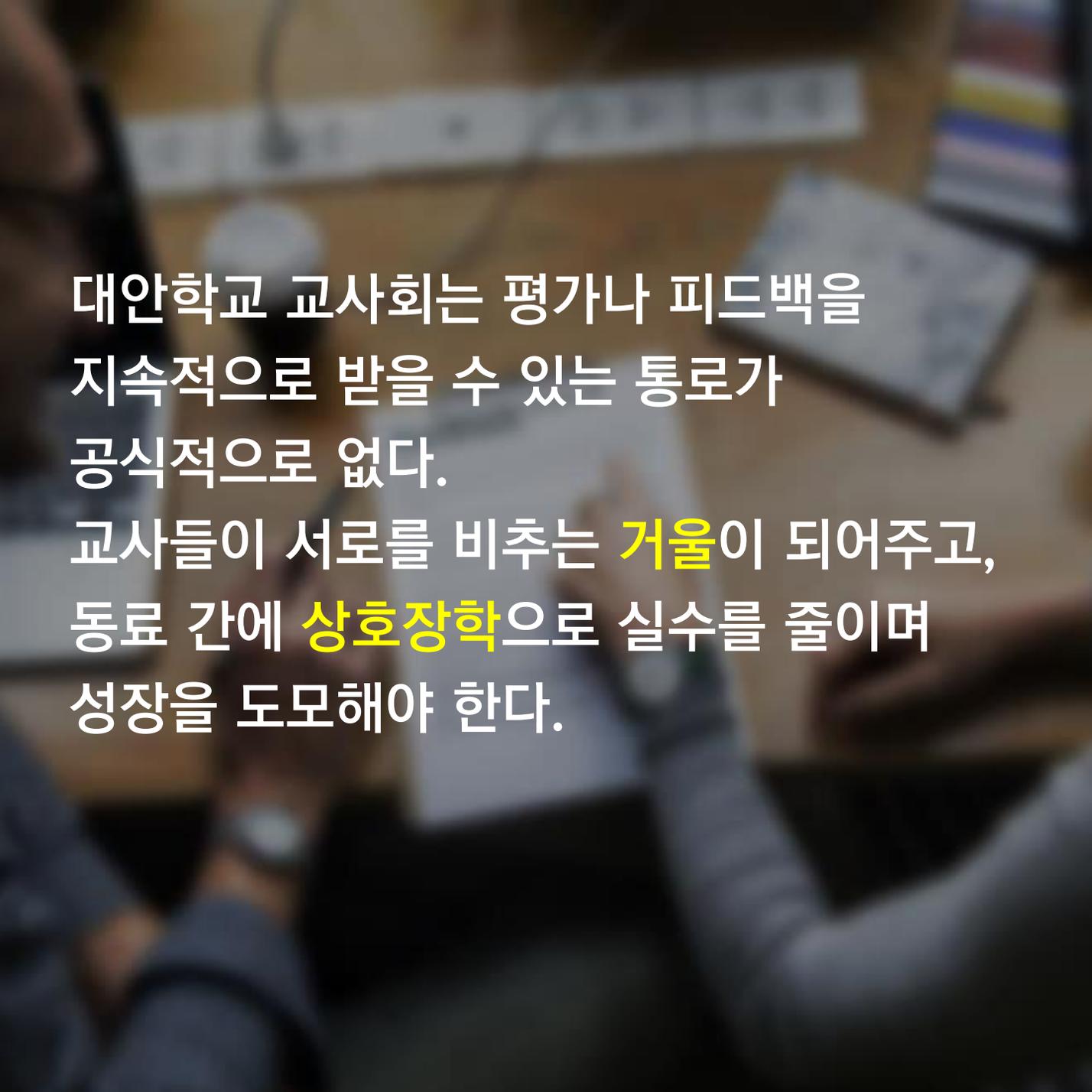
그냥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세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시대 변화에 발 맞춰 따라가지 못했다.

이것이 **‘놓쳐버린 8년’**의 의미며 비밀이다.
세상을 알고 대안교육을 이해해야,
이해하는 만큼 자신과 대안교육을
바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열정은 있었으며
인간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미숙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실망했을
부모와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대안학교 교사회는 평가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공식적으로 없다.

교사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동료 간에 **상호장학**으로 실수를 줄이며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대안학교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혁신학교 등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 I M E
F O R
C H A N G E

사람은 아프면 겸손해지며,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정직한 자세로 정말로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3 | 로 계속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③

— 대안교육은 우리 교육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놓았는가? — 공(功)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족한 점을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한다.



대안교육은 교사와 아이들과 부모를
재발견해서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세웠다.

학부모의 창조적 교육역량과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인간 종 안에서 생물학적 차이는
무시할만한 수준에 불과하며,
따라서 인류는 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고
인간과 못 생명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를 구별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대한다는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육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런 주문을 외운다.

**‘오늘의 아이는 어제의 아이와 다르고,
내일의 아이는 오늘의 아이와 다를 것이다.’**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고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고민하게 되었다.
부모-자녀, 교사-학생 사이 대화 결론이
항상 기-승-전-공부에서
기-승-전-무한한 가능성 으로
열려있는 인간상을 제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엔
학습과 놀이와 생활이
조화롭게 함께 가야
건강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아이들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또 머리로만 아니라 몸 전체로
배운다는 오래된 원리를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1. 표준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2. 민주주의, 생태, 평화, 공감, 인권 등 교육에 가치를 결합했다.
3.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의미를 새삼 일깨웠다.



4. 교사-부모-아이들 사이에 수직적 방식에서 수평적 관계로 발상을 전환했다.
5. 혁신학교 등 공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6. 청소년기에 여행과 인턴과정을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채택했다.



7. 생활과 동떨어진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나를 알고 생활과 연관된 교과를 가르쳤다.
8.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결합한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했다.

이 목록을 보고
누구는 인색하다고 할 것이고,
누구는 과장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은 서투르고 미흡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대안교육이 추구해온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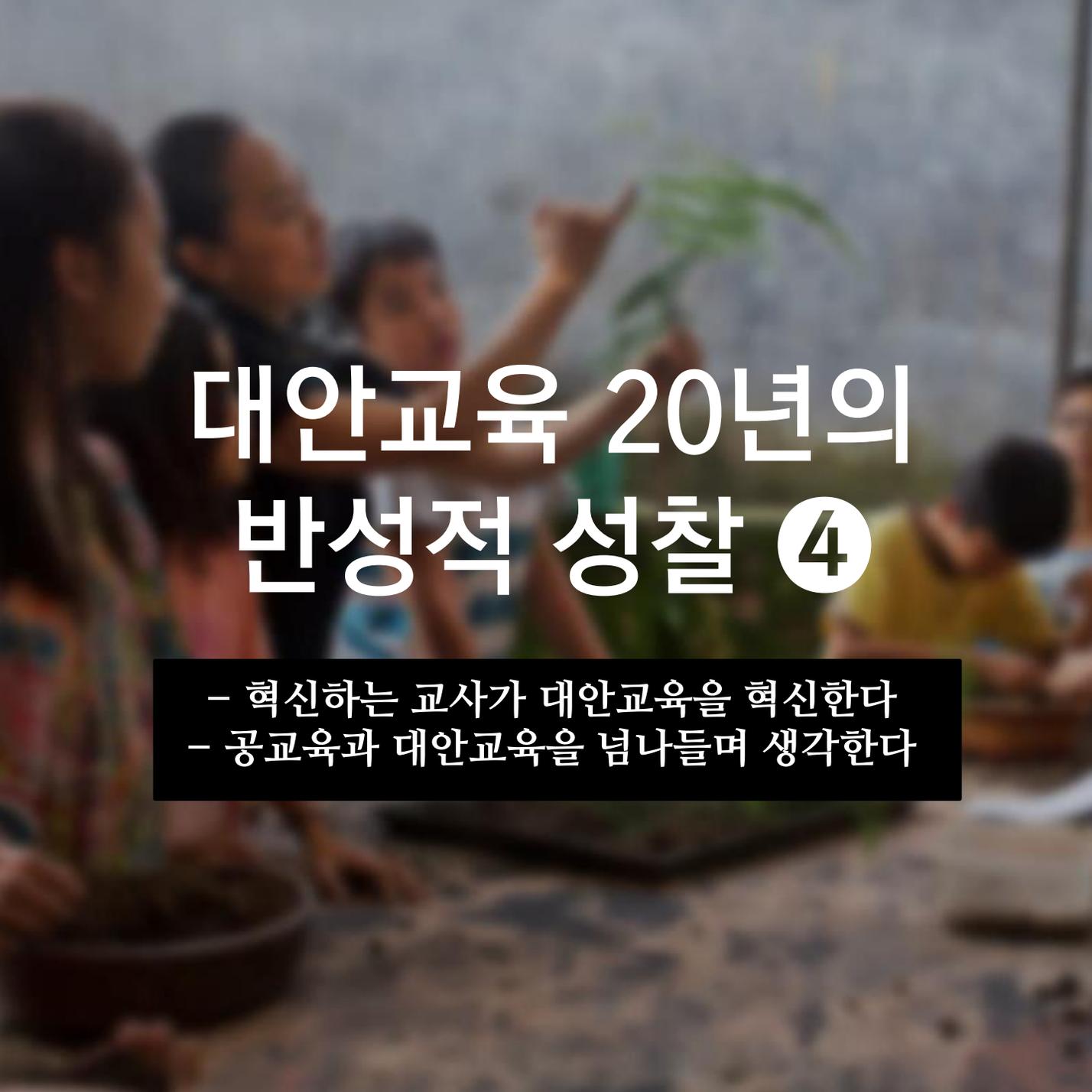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대안교육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 직업관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다.
인간은 50대 60대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존재다.
더군다나 인간의 성장은 일직선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고 뺨뺨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교육에 도약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고 치열하게
나가는 것이야말로 대안교육이 인정받고
발전하는 좋은 방법이다.

|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4 | 로 계속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④

- 혁신하는 교사가 대안교육을 혁신한다
-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넘나들며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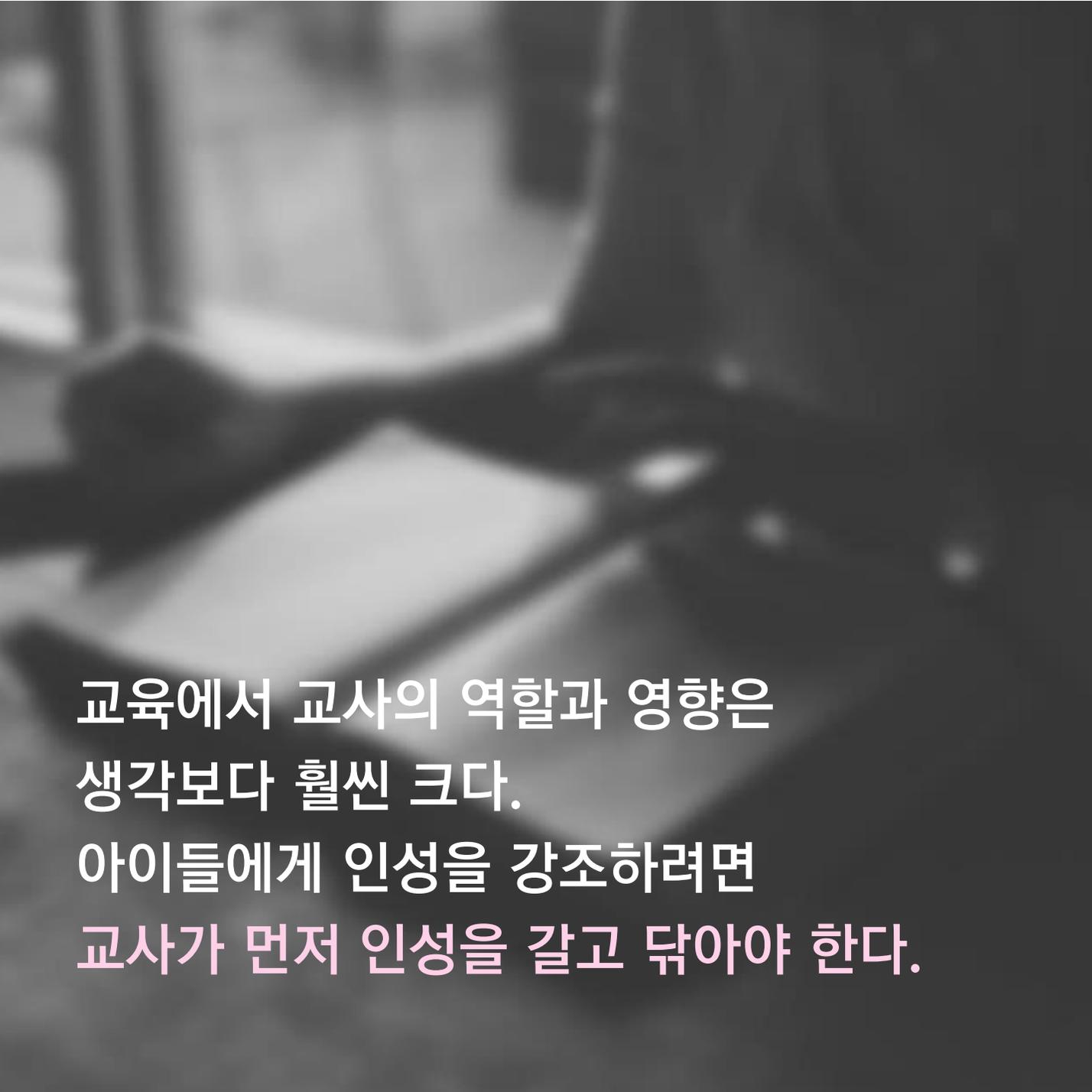
앞으로 20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그래서 다시 ‘나루터를 묻는다.’

“使子路로 問津焉하신대”

‘공자께서 자로를 시켜
"나루터가 어딘지 물어오라" 고 하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다.
아이도 교육도 인생도 3차원이다.

한쪽 눈만 사용해서 평면적으로 보면
관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과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이들에게 인성을 강조하려면
교사가 먼저 인성을 갈고 닦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먼저 민주주의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마치 진화론을 모르고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고,
고전을 모르고 고전을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다.



교사가 자신의 정신세계에
갇히면 지는 거다.

담대하게 자신을 배움 앞에
영원히 노출시켜야 한다.

교수법을 공개하고 서로 참견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다.



양자역학을 완성한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썼을 때,
그는 사람의 염색체 수를 48개라고
잘못 적었지만 이 책이 가지는
고전적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잘 해도
더 좋은 교육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먼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교사가 나의 스승이며,
아이들이 있으면 그곳이 배움터이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 첫째

재능과 불리한 조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말로 **학교공동체**라면

이런 불리한 조건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가꾸어나가야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 둘째

아이들의 성격과 능력, 여러 가지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학교를 통해서 성격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불행은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마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시간과 함께.

인간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향상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촛불과 미투(me too) 이후의 교육은 무엇인가?

지금은 커다란 사회적 변환점에 서있다.
새로운 교육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다.
염치를 아는 인간,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대안교육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대안교육에 갇혀있던 시야를

전체 교육으로 넓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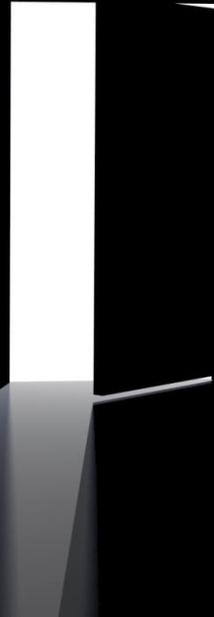
우리 사회 교육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를 고민하며,

그 속에서 대안교육의 전망을 찾는다.

예를 들면 극심한 입시경쟁 속에서
과중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네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국민과 함께 찾는다.

우리는 교육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즐거움,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안 보이지만
문제의식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공교육은 형식권 교육이고
대안교육은 비형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형식권 교육과 비형식 교육

양 날개로 날아오를 때

담대하게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며 제안이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이만하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경쟁교육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촌과 산골과
길거리와 도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다.

대안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 대안교육 20년의 반성적 성찰 1-4 | 끝



| 교육빅뱅 저자 |
| 불이학교 교사 |
글쓴이 이철국 (강아지똥)

www.burischool.org